



멸종위기에 처한 아프리카 코끼리

I. 아프리카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지구의 육지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이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대개 10마리로 무리를 이루어 생활을 하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암컷이 수장으로서 무리를 이끄는 것이 보통이다. 코끼리는 평생동안 성장을 계속하는데 최대로 성장하면 몸무게는 6톤이나 된다. 코끼리는 매일 300파운드나 되는 풀과 나무껍질을 먹어 치우는 초식성(草食性)의 대식가이다. 코끼리의 자연적 수명은 60년이 넘으며, 코끼리는 상호간에 저주파의 신호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코끼리는 그 육중한 몸집과는 달리 매우 감정적이며 정서적인 동물이다. 코끼리는 서로 그 코를 부비기도 하며 같이 걸기도 한다. 같은 무리 중의 일원이 무리에서 잠시 떨어져 나간 후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들은 코를 서로 꼬고 귀를 펴려는 등 매우 흥분한다. 코끼리는 죽음에 대하여 본능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 무리 중의 한마리가 죽으면 나머지 코끼리들은 죽은 코끼리의 몸을 코와 다리로 부비며 나뭇가지와 흙으로 사체를 뒤덮어 놓는다. 코끼리는 자기의 가족의 유골을 인



이상돈 / 중앙대법대 교수

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한 동물학자는 7세 난 코끼리가 자기의 어미의 유골을 알아 보고는 오랫동안 주위에 머무는 것을 파악하여 보고한 바도 있다. 그리고 새끼 코끼리가 사망하면 어미 코끼리는 극심한 디프레션에 빠지며, 무리의 수장인 나이 많은 코끼리가 죽으면 전체 가족이 분산되며 코끼리들은 보다 공격적으로 된다.

자연 상태에서 코끼리에게는 천적이 없다. 코끼리에 대한 위협은 전적으로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아프리카의 삼림과 초원지대가 개간되어서 농업지대로 바뀌어 감에 따라서 코끼리는 서식지를 잃어갔다. 최근까지도 남아공화국과 짐바브웨는 자국내의 코끼리의 숫자가 서식지의 용량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코끼리를 도태시켜 ("culling") 왔다. 그러나, 코끼리는 무엇보다도 그 상아 때문에 수십년에 걸쳐서 학살되어 왔던 것이다.

II. 코끼리의 대학살

인간은 코끼리의 상아로 각종의 물건을 만들어 왔는데 이로 인해서 코끼리는 남획되어 왔던 것이다. 코끼리의 상아는 주사위, 권총의 손잡이, 염주알, 당구공, 피아노 건반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다. 1920년대에는 미국에서만도 연간 6만개의 당구공과 수십만개의 피아노 건반이 상아로 제조되었는데, 따라서 이같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수천마리의 코끼리가 학살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는 극동 아시아 지역이 상아의 중요한 소비자로서 등장하였다. 특히 일본은 상아로 만든 도장이 신분의 상징으로 대두되었으며 젓가락과 같은 일상용품과 고가의 장식품의 소재로서 사용되었다. 현재, 세계의 상아의 40%가 일본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1988년 한해동안만도 64톤의 상아가 100만개의 도장을 만드는데 소비되었다고 한다. 홍콩은 1979-87년간 3,900톤의 상아를 수입함으로써 세계의 상아교역의 중심지를 이루었는데 3,900톤의 상아는 40만 마리의 코끼리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막대한 양의 상아는 대부분이 불법적인 밀렵에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실로 1979-89년의 10년동안 아프리카의 코끼리의 숫자는 150만 마리에서 50~6

0만 마리로 줄어 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며는 금세기안으로 아프리카의 코끼리는 완전히 절멸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1980년대 초에는 상아의 시장가격이 파운드당 25불이었는데 1989년에는 파운드당 80불로 상승되었는데, 상아의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밀렵조직은 자동소총으로 증무장하여서 타국의 국경을 넘나 들면서 코끼리를 밀렵하였는데 소말리아와 앙골라는 사실상 이러한 밀렵행위를 방관 내지는 조장하는 형편이었다. 코끼리가 남획되어서 큰 상아를 가진 성장한 코끼리가 드물게 되자 밀렵자들은 코끼리 떼를 자동소총으로 몰사시켜서 새끼 코끼리의 상아까지도 마구 잘라가는 참혹한 일을 서슴치 않게 되었다. 이에 케냐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밀렵자들을 현장에서 사살하도록 명하였고, 따라서 정부군과 밀렵자와의 교전이 자주 발생하였다.

케냐의 다니엘·모이 대통령은 1989년 7월에 밀렵자로 부터 압수한 2,400개의 상아를 소각시킴으로써 코끼리를 지키려는 의지를 국내외에 확고히 하였는데, 케냐에서 과거 10년동안 코끼리의 숫자가 65,000마리에서 17,000마리로 줄어 들었던 것이다.

III.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아프리카 코끼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환경보호단체인 「World Wildlife Fund」, 「Wildlife Conservation International」 등과 영·미의 민간 학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1989년에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1989년 4월에 뉴욕시의 소더비 경매장은 2벌의 완전한 상아를 장식품으로 20,000불과 28,000불에 각각 내어 놓았는데 환경보호단체의 거센 비난에 봉착하여 경매계획을 취소하고 말았다. 이러한 여세를 모아 환경보호단체들은 전 미국의 보석상에 편지를 보내서 상아로 만든 장식품을 팔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매시(Macy)를 위시한 상당수의 백화점체인이 상아제품의 판매를 추후에 없애 버리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상아의 수입이 여론의 비판으로 줄어 들게 되자 다음으로는 세계 최대의 상아 수입국인 일본을 향하여 거센비판이 가하여 졌다. 일본은 세계에서 열대

목장을 가장 많이 수입하여 열대 삼림의 제1의 파괴자이며, 태평양에서의 마구잡이식의 조업으로 돌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을 가장 많이 희생시키는 국가이며, 또한 남태평양의 소형 거북이로 장식품을 만드는 등 실로 생태계 파괴의 제1인자인 것이다. 저명한 환경보호주의자인 Roger McManus는 일본을 “환경테러주의자”라고 비난하였는데, 그는 일본이 자국의 환경보호에는 성공하였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환경은 무시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고 하였다.

마리화나나 코카인의 밀수와 마찬가지로 상아도 역시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이 있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상아의 교역과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코끼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안인 것이다. 1989년 5월, 탄자니아와 케냐 등 8개의 아프리카 국가는 “멸종위기의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 CITES)를 수정하여 상아의 교역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1989년 9월 25일, UN에서 연설을 통하여 조지·부쉬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상아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에 따라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자 일본도 상아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같은해 10월 CITES는 스위스의 로잔에서 코끼리 보호를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1990년 1월부터 코끼리의 상아의 교역을 전면 금지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짐바브웨와 보츠와나를 위시한 5개국이 이에 동의하기를 거부하였으며, 영국은 홍콩이 보유중인 470톤의 상아를 처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유보하였다. 짐바브웨와 보츠와나는 자국의 서식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의 코끼리를 계속적으로 도태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환경보호단체들은 코끼리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케냐와 탄자니아에 서구국가들이 경제원조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IV. 맺는말

고래와 코끼리의 보호문제는 실로 인류문명이 자신의 생태계를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테스트·케이스일 것이다. 고래에 비한다면 코끼리의 보호는 비교적 낙관적일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멸종위기에 처하

여 있는 아프리카의 동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상아도장을 일종의 신분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검은 코뿔소의 코뿔의 중요한 소비국으로 알려져있다. 아프리카의 검은 코뿔소는 현재 4,000-5,000마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코뿔소의 코를 잘라서 분말로 만들어서 한국과 대만, 일본에 정력제, 최음제 및 천식해소제로서 밀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아와는 달리 코뿔소의 코뿔을 분말로 갈아서 여행자를 통하여 유입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세관은 이러한 국제적인 수치를 적절히 규제하여야 할 것이며, 역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이 같은 야만적인 행태를 근절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